

416 생명안전공원 국제공모전 시민지침서' 중 붙임 1. 세월호 참사의 개요 및 의미

세월호 참사의 발생 개요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경,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카페리(CarFerry) 세월호는 승객 447명(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교사 15명 포함)과 승무원 29명 등 총 476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발하여 다음날인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마일 해상(맹골수도)를 지나던 중 오전 8시 25분경 갑자기 선체가 좌현으로 약 30도 가량 기울었고, 이후 복원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표류하다가 10시 17분경 108.1도까지 기울었고, 11시 18분 경 선수(배의 앞부분)의 일부만 남기고 바다 밑으로 침몰되었다. 이로 인하여 총 탑승자 476명 중 배가 기울기 시작한 초기 서둘러 탈출하거나 갑판으로 올라갔던 생존자 172명을 제외한 299명이 사망하고, 현재 5명이 실종되었다. 총 희생자는 304명(미수습자 포함)이고, 특히 단원고 학생 희생자 수는 250명(미수습자 포함)이나 되었고 생존율은 23%에 그쳤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essel Traffic Service Center, VTS)는 사고당일 오전 9시 6분 경 목포해경으로부터 사고소식을 전해들을 때까지 약 20분 동안 세월호에 대해 전혀 관계하지 않았고, 최초 사고신고를 접수한 목포해경 및 서해지방해경도 초기대응을 태만히 하고 보고를 누락하여 최종 명령권자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퇴선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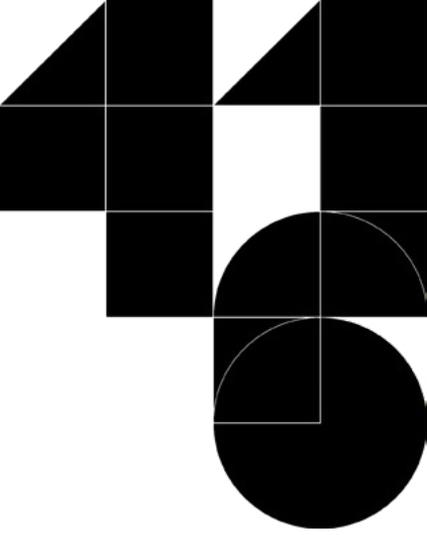
목포 해양경찰청 소속 123정은 사고접수 후 약 40분이 지난 오전 9시 35분경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였는데, 선미의 승객들은 구조하지 않고, 세월호 선수 방향 조타실로 향하여 선원들을 먼저 구조했다. 당시 해경 소속 123정과 구조 헬기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세월호는 왼쪽으로 약 52.5도 기울어진 상태였으나 선내에서 갑판으로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123정은 퇴선방송을 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이 사고당일 잠수가 가능한 특공대원에게 출동지시를 내린 것은 오전 8시 58분이었지만, 특공대원 7명이 현장까지 출동할 헬기가 없어 민간어선으로 갈아타고 이미 11시 15분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세월호가 선수만 남기고 침몰한 이후였다.

배가 90도 가까이 기울어 출입구가 천정이 되어버린 오전 10시 10분까지, 세월호 선장들과 선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만 반복했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도 승객들에 대한 퇴선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선원들 모두가 123정으로 탈출하여 그 뒤 퇴선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다. 결국 세월호는 사고 발생 후 2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18분, 선수 일부분을 남기고 뒤집어진 상태로 완전히 침몰하였다.

총 탑승자 476명 중 배가 기울기 시작한 초기에 서둘러 선실을 빠져나와 갑판으로 올라갔던 생존자 172명을 제외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을 따랐던 대부분의 학생들과 승객들은 기울어진 선내에 대기하다 선실에 갇히게 되었고, 그 뒤 제대로 된 구조활동을 시도해보지도 못한 채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하고 남은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하였다.

10월 28일 세월호 사고 197일 만에 수색팀이 295번째 희생자를 발견했다. 수색 잠수부들의 안전이 위협해지면서 11월 11일 진도 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수색중단 선언으로 모든 수색이 종료되었다. 이후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014년 11월 18일 공식 해체하였다.¹⁾

1 <대한변호사협회> 4.16세월호참사 백서 발췌 인용



세월호 참사의 발생 개요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²⁾

세월호는 청해진해운이 자사의 항로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가며 일본에서 만든 나미노우에호를 수입해 증개축한 배이다. 도입 과정에서 인천항만청의 부당한 인가, 한국 산업은행의 불법적인 100억 원 대출, 한국선급의 부실한 선박 검사, 인천해경의 무성의한 현장 점검 등 해운업체와 담당 행정기관의 총체적 부정, 부패 세력에 의해 운항허가를 획득했다. 선사와 업체, 담당 공무원들 뿐 아니라 국정원도 세월호의 증, 개축 과정과 운항 관리와 참사 이후 선원 취조 과정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도입부터 운항까지 각종 불법과 편법의 결과물이었던 세월호는 2014년 4월 15일 밤 9시 무렵 안개 낀 인천항을 출발했다. 출항 당시 세월호에는 수학여행 중이던 단원고 학생 325명을 비롯해 승객 443명, 선원 33명이 타고 있었고 총 2,210톤의 화물이 실려 있었다. 세월호가 아직 바닷속에 있던 2014년에 검찰은 화물 과적과 고박상태 불량 그리고 이로 인해 복원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타실수로 인해 세월호가 급선회 후 침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선제조사위원회 일부는 여기에 인천행 솔레노이드밸브가 고착된 사실을 밝힘으로써 세월호와 선원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선제조사위원회 또 다른 일부는 복원성이 불량하지 않았으며 인천행 솔레노이드밸브 고착이 급선회의 직접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솔레노이드밸브 고착과 급선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CCTV와 항적 데이터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는 정황과 증거를 발표하고 수사요청 및 특검요청을 함으로써 세월호 급선회와 침몰원인 규명에 새로운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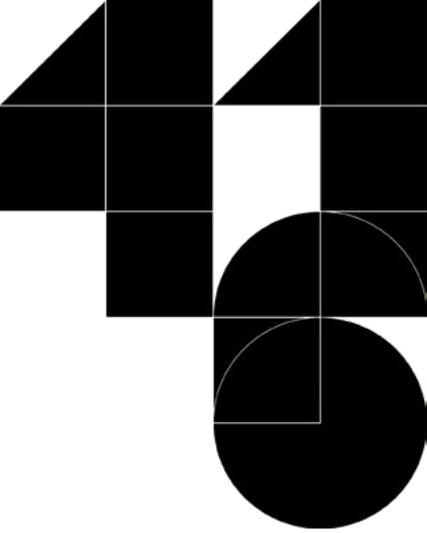
세월호 사고가 참사로 불리는 이유는 세월호 침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살 수 있었던 승객들이 죽음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세월호의 수밀문과 맨홀을 열어놓은 채 운항한 이유와 책임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밀문과 맨홀이 제대로 닫혀 있었다면 세월호가 불과 100분만에 완전히 침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경 병풍도 앞바다에서 세월호는 오른쪽으로 급변침을 했다. 빠른 속도의 급변침 직후 단 일 분만에 좌현으로 47도까지 기울었다. 8시 52분 선내에 있던 단원고 학생이 119에 최초 신고를 했고 2분 뒤인 8시 54분 목포해경에 침몰 상황이 전달되었다. 이후 목포 해경의 출동 지시에 따라 9시 26분 CN-235기, 9시 27분 B-511호, 9시 32분 B-513호, 9시 35분 P123정, 9시 45분 B-512호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해경 구조세력은 단 한 차례도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여 선내 상황을 파악하지 않았고, 선내로 진입해 승객들의 탈출을 안내하지 않았다. 침몰해가는 세월호 안에서는 여객부 선원이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자신이 탈출하기 직전인 9시 45분까지 반복했다. 해경 123정은 승객들이 기다리는 배 뒤쪽을 외면하고 배 중앙 3층 난간과 배 앞 5층 조타실로 먼저 달려가 기관실과 조타실 선원들만 적극적으로 구조했다.

해경과 청와대는 침몰해가는 배에서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반드시 했어야 할 모든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 첫째, 청와대를 비롯한 구조세력 지휘부는 골든타임 내내 승객 구조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둘째, 현장 구조 세력들은 선내에 있는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CN-235기는 저공 비행이 가능했으나 현장 촬영과 항공 통제만 했다. 연이어 도착한 헬기들도 세월호에 승선해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다. 123정은 대공 마이크를 갖추고도 승객들에게 선내에서 나오라는 퇴선 방송을 하지 않았다. 선내 대기 방송을 멈추고 즉각적인 퇴선 안내 방송을 했더라면 선내에 있던 승객 전원이 탈출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세월호 주변에는 탈출한 승객 전원을 구조할 대형 어선과 화물선이 충분히 있었다.

2 <대한변호사협회>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에서 확인한 내용.



세월호 참사의 발생 개요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

세월호가 좌현 45도로 기울자마자 C갑판에서 시작된 침수는 열려진 수밀문과 맨홀을 통해 급속히 선내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수밀 구획이 닫혀 수밀성이 제대로 유지 되었다면 좌현 65도에서 6시간 이상 떠 있을 수 있었다. 규정대로 수밀문과 맨홀이 닫혀있었다면 승객 구조가능 시간은 100분이 아닌 300분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선원들과 선사는 모든 수밀구역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해경에 의해 가장 먼저 구조되었고, 세월호는 10시 30분 경 선수 부분만 남겨둔 상태로 침몰하였다. 생존자는 172명, 희생자는 304명이었고 단원고 학생 희생자는 250명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의미

1. 국가의 부재로 인한 304명의 희생에 대한 책임

세월호가 급변침으로 인해 기울기 시작한 8시 49분부터 선수 부분만 남긴 채 침몰한 10시 30분까지 정부 책임자들이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시도는 단 한 가지도 없었다. 대한민국의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부터 현장 구조 세력에 이르기까지 구조가 가능한 골든타임 내내 해상 선박 침몰 발생 시 제일 원칙인 퇴선 명령은 없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현장에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 국가 권력이 부재했다.

2. 철저한 진상 조사, 책임자 처벌

참사 이후 피해자들과 국민의 염원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권은 위증, 증거 은폐, 보고서 조작, 특조위 조사 방해, 언론 조작, 유가족 사찰 감시 등의 방법으로 모든 권력을 동원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았다. 지금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하다.

3. 생명 존중의 가치, 안전한 사회

세월호는 도입 과정부터 운항 관리에 이르기까지 개인들의 사적 이익과 조직의 이윤 추구만을 앞세워 승객들의 안전 문제를 철저히 무시했다. 관련 책임자들의 부정, 부패, 부실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이 세월호였다. 사실상 선사와 업계와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배를 도입해 운항하도록 허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304명의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었으나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피해자를 잊고 가해자의 입장만을 존중한 사법부에 의해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4. 피해자 위로와 사회적 화합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자는 희생자의 유가족과 생존자들만이 아니다. 이웃이 수장당하는 참사의 장면을 목격한 대한민국 온 국민이 피해자이다. 그러나 참사의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왜곡했다. 그 뿐 아니라 희생자와 가족들을 공격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면서 국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해왔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날의 기억을 간직한 국민들 또한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 및 시민들의 이야기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세월호 부모님들께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피해가족 단체인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부서 중에서 4.16생명안전공원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집중하고 계시는 추모부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서운 아이들이 아니에요.”

4.16생명안전공원은 한국의 고정관념 상 기피하게 되는 기존의 추모시설처럼 건립하려는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악의적인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피해 가족들은 그런 상처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도 국민들과의 약속과 사회적 성찰과 미래세대를 바라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들은 2014년 당시 국가와 사회시스템의 구조 방기와 진상규명 방해, 은폐, 조작, 모함, 이념적 비방, 모독 등의 수난을 겪으면서도 차갑고 어두운 바다에 수장된 억울한 희생이 잊혀지지 않도록 오늘도 험난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8군데 이상 각처에 희생자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4.16생명안전공원은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존중하기 위해 그 분들이 한 곳에 모이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엽게 간 우리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데려올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어요.”



(우측부터 신호성 학생 어머니 정부자 추모부서장, 진윤희 학생 어머니 김순길 팀장, 조은정 학생 어머니 박정화 팀장, 오영석 학생 아버지 오병환 팀장)

“그런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면 좋겠어요.”

세월호 부모님들께서는 부모의 심정에서 당신 아이만 바라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단원과 아이들 그리고 희생자 모두가 보이기 시작했고,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304명의 희생과 250명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가장 강조 하십니다.

“불쌍하니까 추모공원을 만들어 준다는 것보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

대 사람들이 배우고 성찰하는 장소, 안전사회로 갈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좋겠어요.”

“미래에서도,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구나. 아이들이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구나. 그런 따뜻한 배움과 성찰의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로 인해 안산이 아픔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했구나 하는 이야기가 남게 되면 부모로서 매우 행복할 것 같아요.”

하지만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이 어떻게 추모시설과 잘 조화될 수 있을지, 그것은 단지 봉안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인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는 질문에는 의외의 답을 주셨습니다. 마음 아프면서 절실함이 느껴지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시골벽적으로 ‘너희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아.’라고 하며 ‘너희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보고 있지?’라고 하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그림대회도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춤을 출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재주를 여기서 마음껏 펼칠 수도 있고, 여기서 토론회도 할 수 있고 또 어른들이 와서 나무도 보면서 꽃도 보면서 실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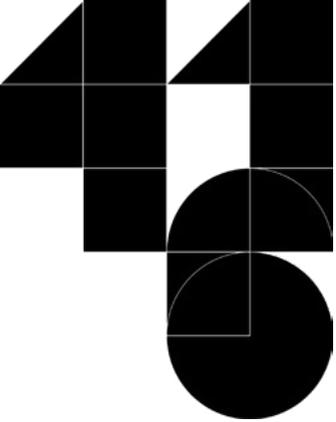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생명존중과 안전사회의 상징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새로운 방식의 추모시설이어야 하고, 새롭고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디자이너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기존의 추모공원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세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틀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닌.”

마지막으로,

“새로운 역사에 동참해 주세요.”



피해자 가족 및 시민들의 이야기

4.16생명안전공원 국제설계공모 시민지침서가 만들어지기까지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피해가족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워크숍 시민 퍼실리테이터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 드립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4.16생명안전공원은 시민으로서 일상과 연결되고 일상이 확장되는 자연스러운 공간이면 좋겠다는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가기에 부담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원래부터 시민들의 산책 공간, 휴식과 놀이의 공간이었던 화랑유원지였던 것처럼 시민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바람이었습니다.

“4.16생명안전공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일상이 그만큼 더 확장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일상이 좀 더 확장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4.16생명안전공원이 무겁지 않게 만들어지면 좋겠다. 꼭 그래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중적인 공간이지만, 여기 왔는데 여기는 뭐 하는데지? 그냥 예쁜 공원이네?”

그러나 그냥 보기 좋고 예쁜 공원이라면 보여 지면 안 된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 공원이 무엇 때문에 생겼고, 무엇을 기억하며 성찰해야 하는 것인지는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이분들과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대중적인 공간이지만, 여기 왔는데 여기는 뭐 하는데지? 그냥 예쁜 공원이네? 라고만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러니 의미를 좀 더 살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 토론에서 더 편안하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담아 낼 것인가가 제일 관건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들이 디자인 지침에도 잘 담겨져서 대중적이지만 의미를 잘 담고 대중들에게 친숙한 공간.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킬 것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주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시민 퍼실리테이터들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민들과 피해가족들의 많은 요구와 희망을 보면서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김미숙 시민 퍼실리테이터

“이 작은 곳에 그걸 다 어떻게 넣지?”

의견 중에도 나왔지만 이분들 역시 공원 부지에 한정 지어 4.16생명안전공원을 상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랑유원지 리모델링 공사라도 연결되어야 하고, 화랑유원지 내 여러 시설들 그리고 고잔동 마을과 단원고까지 이어지는 길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화랑유원지 전체 공원 안에 있는 것들을 연계시키고, 화랑유원지 전체를 놓고 이 부분을 봐야지 여기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마을과도 다 연결이 되어야죠.”

그리고 시민 퍼실리테이터들은 공원 조성 과정에서의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명 건축공사 사례를 보면서 공원 조성 과정에서 소통과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디자이너들에게 충분한 소통을 준비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송승연 시민 퍼실리테이터

“그런 스토리를 잘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디자인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연결되어서 뭔가 역사처럼 맥을 짚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의 스토리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가족들도 위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밟아오고 그 과정을 느꼈던 사람들이 뭔가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 역시 새로운 역사에 디자이너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후일에 모든 것이 잘 조성되고 새로운 공간과 의미, 방식을 확인하면서 안산시민 모두에게도 화합과 치유가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져서 반대하던 분들도 그때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반대했던 분들도 같이 와서 누리고 이용하게 될 거예요. 내가 예전에 생각을 잘못 했었구나 할 거예요. 그렇게 모두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혜란 시민 퍼실리테이터



최운경 시민 퍼실리테이터